

잊혀진 장수가야의 옛 이름 찾아

장수 삼봉리 산성 유적서 가야 토기·성벽 등 봉수 흔적 발견

장수 삼봉리 산성 유적에서 가야 토기와 성벽 등 가야산성(봉수) 흔적이 발견됐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과 군산대학교가원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진행 중인 발굴조사에서 장수 삼봉리 산성(봉수) 유적에서 가야 토기와 성벽 및 봉수의 기초부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

금번 발굴조사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장수군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학술조사이다.

장수 삼봉리 산성(봉수)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와 계남면 화음리의 경계를 이루는 백화산(해발 849.5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정상부(해발 555m)에 위치한다.

이곳은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백두대간 육십령의 서쪽 초입에 해당되며, 전북지역 최대의 가야 고층군으로 알려진 '장수 삼봉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이 인접해 있다.

이 유적은 학계에 '장수 삼봉리 산성'으로 보고되어왔으며, 주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봉화터'로 전해지고 있다.

삼봉리 산성은 산 봉우리를 한바퀴 둘러 성벽을 축조한 형태로, 둘레는 300m 내외이다. 이번 조사는 산 정상부 발굴조사와 남쪽 성벽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정상부에서는 자연인분을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과 무너진 석재들이 확인됐고, 대부장경호(굽달린북간함이라)와 유계장경호(뚜껑 있는 북간함이라), 시루 등 가야 토기가 출토됐다.

명확한 지상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

체적인 조성기법이 삼국시대 봉수로 알려진 장수 영취산, 봉화산 봉수의 기초부 조성기법과 유사하며, 출토된 유물도 인근의 가야 고층군 출토품과 흡사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성벽 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조기법이 확인됐다. 성벽은 외벽만 쌓았는데, 자연압반 위에 다듬지 않은 석재를 사용하여 조잡하게 축조됐다.

성돌과 기저부, 성돌과 성돌 사이에는 작은돌을 끼워 넣었는데, 이러한 축조기법은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봉수의 봉대(烽火臺)의 거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부 및 소규모 산성에서 확인되는 축조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밖에도 8세기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화장묘(시신을 불에 태워 남은 뼈 또는 뼈가루를 그릇에 담아 묻은 무덤)를 비롯해 나팔여초기(통일신라시대 말~고려 초)의 토기편과 기와편, 철기류 등과 함께 건물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철(기둥을 바싹던 구멍) 등 확인됐다.

특히 출토된 철기 중에 철제 약연(약재 도는 찻잎 등을 가는 도구)이 있는데, 발굴품으로는 매우 희소한 것으로 창녕 화왕산성, 문경 고교산성, 부소산성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삼봉리 산성(봉수) 유적은 삼국시대 산성 혹은 봉수의 기능으로 축조된 뒤 통일신라시대에는 묘역으로 그 기능이 바뀌고 나팔여초기에 누정(樓亭, 누각과 정자)과 같은 시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삼봉리 산성(봉수) 유적은 삼국시대 장수군에 존재했던 가야계 정치체와의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야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를 통해 1500년전 장수가야의 역동적 역사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잊혀진 장수가야의 옛 이름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현조 인류문화사학자의 네 번째 강좌 모습.

“샘고을 정읍에서 인문학 배워요”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서 내달 2일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

한국문화예술교육사업연합회 정읍지부(지부장 이미정)가 주관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후원하는 인문학 강의를 지난 6월부터 8월 2일까지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주로 정읍의 역사·문화·종교 등으로 총 9회 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회 차를 마쳤다. 강사는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비롯, 김현조 시인 겸 인류문화사학자, 김기미 미술관 학예사, 김동수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권영동 작가, 정재영 시인, 전일환 전주대 명예교수 등 7명이 분야별로 하고 있다.

정읍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요인 백제가요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정극인의 '상춘곡'의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변화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동학혁명의 발상지이다.

또한 정읍은 증산교, 보천교, 원불교, 경정유도회 등 수많은 신흥종교의 태동지일 뿐 아니라 천주교신자들의 피압시절과 성지가 많은 지역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곳이다. 기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읍의 역사성에 비추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샘고을 회계(Cygg)인문학 강의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처음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 정옥기 씨는 "정읍은 작은 농도로서 문화와 예술적 접근이 다양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그동안 음악 공연 위주의 예술 활동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역량에 비견한다면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인문학은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강생 정금식 씨 또한 "정읍은 호남평야의 초입으로 넓은 들판을 통해 들고 나는 수많은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하고 앞장섰던 고장이었다. 그런데 현재

도시 규모가 작아진 정읍은 정신문화까지 작아져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갈등과 문제를 인문학을 통해 많이 해소된 것 같다. 이번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가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에 집중 되어있는 것도 좋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시일을 북방민족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넓혀서 문화와 민족사적 역사에 대한 무대를 확장해준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는 이미정 한국문화예술교육사업연합회 정읍지부장은 "정읍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삼국시대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읍이 퇴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정읍은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게 새로운 사상을 흡수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창하여 정신문화를 선도한 도시이다. 이번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영감을 얻고, 자부심을 높여 일상생활 중에도 자존감과 품격 있는 정읍 시민의 품격을 도모할 기회가 되겠다"며 "남은 강의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인문학 강의는 정읍시에서 가지는 특별한 만남이 분명하다. 그동안 다양한 강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읍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농도인 정읍시의 정책 방향도 제시되고 있으며, 관공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주의 강의는 정읍시에 대한 문화와 역사의 폭넓은 내용으로 김동수 박사가 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미정 한국문화예술교육사업연합회 정읍지부장(010-5548-6800)에게 신청(신청수 50명)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 과소화마을 대상 북한 문화예술 공연 진행

진안군이 11일 문화의집 공연장에서 과소화마을 주민 150여 명을 위한 찾아가는 북한 문화예술 공연을 열었다.

전북도도와 진안군의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교령화와 소규모화가 되고 있는 과소화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북한 문화예술 공연을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반갑습니다'로 시작하여, '여행을 떠나요', '무조건' 등의 유명 가요를 여성중창, 독창, 기타 병창으로 선보였다. 무용, 아코디언 연주, 옷 변신 쇼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활동지원팀 관계자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웃음치료, 인지놀이 등 건강하고 즐거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제르바이잔 세계유산위원회 폐막... '한국의 서원' 등재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서원' 등 세계문화유산 24건을 등재하고 막을 내렸다.

6월 30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4건, 복합유산 1건, 자연유산 4건 등 총 29건 유산을 새로 세계유산에 올렸다. 1건은 확장 등재됐다. 이로써 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세계유산은 모두 1121건이 됐다.

'한국의 서원'은 6일 오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등재 직후 문화재청은 지방 정부와 협력, 서원 9곳의 통합 보존 관리 추진을 약속했다.

문화재청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ICCROM)와 IUCN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을 노르웨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군 보존사업을 비롯한 세계유산

신탁기금 사업의 한국 기여에 대해 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제2차 정기보고 후속조치 보고를 통해 여러번 언급했다.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존현황의 점검 보고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기보고는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이루어지고, 결과는 202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한국은 실무진 워크숍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다.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방안 결정과 등재 절차 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시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